

‘뉴 한미’ 1년 만에 흔들... 박재현 연임 무산되나

〈한미약품 대표〉

오는 31일 주주총회에 안건 상정 4자 연합 균열 조짐으로 갈등 확산 유력 신임후보에 황상연 대표 물망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그룹이 도입한 ‘선진 거버넌스 체제’가 흔들리고 지배구조에 적신호가 다시 켜졌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문경영인과 대주주가 조화를 이뤄내며 ‘뉴 한미’를 선포하고 1년 만이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와 그룹 최대주주 신동국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대립이 심화되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 균열 조짐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선 송영숙 회장이 신임하고 있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연임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를 열고 핵심 계열사 한미약품의 이사 선임 안건을 논의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된다.

이달 한미약품 이사회 10명 가운데 박재현 대표를 포함한 5인의 임기가 만료를 앞둔, 신규 이사 후보가 검토되고 있다. 김태균 감사위원 연임과 황상연 대표,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 채이배 전(前) 국회의원, 한태준 권

회는 김재교, 임주현, 임종훈 등을 비롯해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3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신동국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또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는 송영숙·임주현·신동국·라데팡스 등 4자 연합이 52.63%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동국 이사 29.83%, 라데팡스파트너스 9.81%, 임주현 부회장 9.15%, 송영숙 회장 3.84% 순이다. 이밖에 에임중훈 이사는 6.46%를 가졌다.

다만 신동국 이사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개인 보유 22.88%, 한양정밀 보유 6.95% 등 총 29.83% 확보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창업주 일가 경영권 다툼을 겪은 임종윤·중훈 형제의 움직임에도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신 이사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코리포항 외 5인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1만32주(6.45%)를 매입했다. 코리포항은 한미약품그룹 계열사 코리그룹의 한국지사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 전(前) 한미약품 사내이사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신 이사와 임종윤·중훈 형제 측의 연대 재편성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4자 연합 내부에서는 이미 법적 공방도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송영숙·임주현·킬링턴유한회사 측이 신 이사를 상대로 청구한 약 600억원 규모 위약금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킬링턴유한회사는 라데팡스의 특수목적 법인이다.

4자 연합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약정하는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 이사가 2025년 1월과 7월,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담보로 총 59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해당 계약 위반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이처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4자 연합 내부 긴장 관계가 최근 박재현 대표 연임 문제로 표면화된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이번 한미약품 신임 대표 선임으로 ‘뉴 한미’ 지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약품그룹은 신약 개발 및 제약 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는 이를 지원하고 견제하는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지속 밝혀 왔다.

한편 유력 후보인 황상연 대표가 한미약품 신임 대표로 등장할 경우 한미약품그룹은 창사 53년 만에 처음으로 ‘정통한 미넨’이 아닌 외부 인사를 맞이하게 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표 선임 결과가 한미약품그룹이 추진해 온 ‘뉴 한미’ 전문경영인 체제의 행방을 가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팜젠사이언스 고함량 멜라토닌 식물성 소재로 안심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

팜젠사이언스는 휴식 관리 제품으로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 (사진)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솔루티 식물성 멜라토닌 5mg’의 핵심 성분은 세인트존스워트에서 유래한 식물성 멜라토닌이다. 1정당 5mg의 고함량을 처방해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를 꾀했으며, 식물성 소재를 사용해 장기간 섭취에도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8종의 부원료를 복합 설계해 제품 기능성을 높였다. 마음의 안정을 돕는 L-테아닌, 자연 유래 멜라토닌이 풍부한 타르트체리, 평온함을 주는 캐모마일 및 레몬밤 등 허브 추출물은 물론,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B1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다.

팜젠사이언스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헬스케어 제품군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불규칙한 생활패턴으로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편안함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기술력·CMO 경쟁력 인정받아

〈위탁개발〉

〈위탁생산〉

표 바이오의약품 제조 콘퍼런스 참가 고농도 제형 의약품 등 CDO 역량 엔드 투 엔드 서비스로 어워드 수상



지난 11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파마 엑셀런스 어워드(ABEA 2026)’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왼쪽)이 수상하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오른쪽)가 회사를 대표해 수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기술 콘퍼런스인 ‘아시아 바이오 의약품 제조 콘퍼런스 2026(BMA 2026)’에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농도 제형 의약품 개발 등 우수한 위탁개발(CDO) 역량을 적극 알리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파마 엑셀런스 어워드 2026(ABEA 2026)’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위탁생산(CMO) 경쟁력까지 인정받게 됐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BMA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컨설팅 기업인 IMAPACO이 후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기술 행사다. 올해는 3월 11~

발센터 제형개발그룹장이 발표를 맡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농도 제형 의약품 개발 플랫폼인 에스-하이론을 활용한 주요 개발 사례 및 도전 과제와 극복 방법 등을 공유하는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CDO 서비스들을 소개했다.

2024년 출시된 에스-하이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다양한 제형 개발 경험을 활용해 고객의 고농도 제형 물질 개발을 돕는 플랫폼이다. 고농도 제형 의약품은 기존 저농도 제형 의약품보다 환자의 투약 부담이 적고 보관 및 운반 비용도 줄일 수 있어 최근 시장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9종의 CDO 관련 기술 플랫폼을 확보했다. 에스-하이론을 비롯해 ▲물질 개발 가능성 평가 플랫폼 디벨롭 ▲자체 세포주 플랫폼

에스-조이스 ▲후보물질 임시 발현 플랫폼 에스-초지먼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계획(IND)까지 맞춤형 CD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ABEA는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업의 바이오 프로세싱, 물류, 공급망 관리는 물론 임상 시험 전문성, 기업 조직, 기술 등을 평가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상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높은 수준의 공정 개발 기술,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생산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바이오프로세싱 엑셀런스 인 코리아 어워드’를 수상했다. /이청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中 산업협력 기반 강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 차이나’ 참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2~14일(현지 시간)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차이나 2026’에 참가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한·중 산업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바이오 차이나는 중국 바이오 산업 플랫폼 기업인 엔모어 바이오가 주최하는 중국 대표 제약바이오 전시·컨벤션 행사다. 중국 주요 제약사를 비롯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자, 연구기관 등 40여 개 국가에서 약 3만 명 이상

이 참여한다. 행사기간 동안 약 250여 개의 전문 포럼 세션과 400여 개 기업 전시, 5000건 이상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된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전 세계 기술이전 계약에서 중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약 4%대에서 2025년 3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된다.

협회는 이러한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바이오 차이나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술거래 확대를 지원한다.

행사 첫날인 12일 쑤저우 국제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노연홍 한국 제약바이오 협회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청하 기자

애경산업 ‘립센트’ 싱그러운 생화향으로 건조한 손 촉촉하게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 3종

애경산업은 퍼스널센트 바다케어 브랜드 립센트에서 건조한 손을 촉촉하고 향기롭게 가꿔주는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립센트 생화향 퍼퓸 핸드크림은 프랑스산 고급 향료를 활용해 글로벌 향료사와 공동 개발한 립센트만의 시그니처 생화향을 담고 있다. 싱그러운 느낌을 전달하는 ‘플라워마켓 화이트 튜립 향’, 청초한 이미지를 구현한 ‘웨딩부케 핑크 피오니 향’, ‘나이트 블루밍 자스민 향’ 등 총 3가지 향을 한 데 구성했다.

또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퀴즈렌드넛오일, 호호바씨오일, 라벤더오일 성분을 혼합한 3-오일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시어버터와 세라마이드 성분을 더해 건조한 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다.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마치 꽃다발을 손에 쥐듯한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사한다”며 “휴대가 간편해 향기가 필요한 순간 수시로 덧발라 향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